

시나리오 제1부

루이스는 약 이 년 전에 선교 사업에서 귀환했다. 그는 미래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염려되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. 루이스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, 매주 종교교육원에 참석하기를 좋아하며, 그것을 우선시한다. 그는 버스를 탈 때나 수업 전에는 보통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한다. 그는 귀환한 이후로 여성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. 그는 가족에게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진지하게 결혼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. 그는 자신이 더 일찍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다면,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.

엠마는 루이스와 같은 종교교육원에 다니지만, 한 번도 그와 만난 적이 없다. 그녀는 보통 친구들과 같이 앉으며, 다른 사람들과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. 그녀는 대체로 남성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.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면, 이전의 다른 모든 관계처럼 끝나 버릴 것 같아 걱정한다. 그녀는 정서적으로 지쳐 있으며, 다른 관계를 맺을 힘이 없다고 느낀다. 그녀는 일 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고,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. 그녀는 참된 사랑을 결코 만나지 못하거나 성전에서 인봉되지 못하지는 않을지, 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한다.

함께 시나리오를 읽은 뒤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.

- 루이스와 엠마의 염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- 준비 자료 제1부에서 배운 내용을 고려할 때, 어떤 조언이 루이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? 엠마에게는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되겠는가?
- 조별 토론에서 다음 구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읽고 그것들이 루이스와 엠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론한다. 잠언 3:5~6; 니파이후서 22:2; 교리와 성약 58:26~28.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행사하였는가?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?

예수 그리스도

후기 성도 교회